

한·미FTA협상 천연꿀 개방위기

최 규 칠 사무총장

지난 2월 6일 전기현 회장은 7차 협상(2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) 전 농림부 국제통상협력과를 방문하여 배종하 국장과 협상단 실무자를 찾아가 한·미FTA에 관련된 천연꿀에 대해 관세유예와 협상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전기현 회장은 수입개방 시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, 국내양봉산업은 아직 수입꿀과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, 벌꿀가격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양봉산업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양봉산업이 무너지면 타 농산물의 화분매개, 자연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또한 4만1천여 양봉농가는 축산분야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한·미FTA협상에서 천연꿀은 협상제외품목으로 분류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. 미국의 협상원칙은 쌀을 제외한 예외품목은 없다는 원칙하에 지난 5차 협상부터 천연꿀을 5년 내 현행관세(243%)를 0%로 유지하여 천연꿀 개방을 요구해 왔다.

즉 미국 측의 요구대로 라면 2008년도부터 축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천연꿀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2012년부터는 무관세로 천연꿀이 완전 개방 될 것이다.

지금까지 우리측(농림부) 협상단은 243개 품목을 초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이중 14개 품목을 가장 민감도(수입개방시 피해가 큰 품목)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(천연꿀 외 13개품목)하여 협상에 임해 왔고, 이번 7차 협상도 이전 협상과는 변동 없이 민감품목으로 보호하는 협상을 펴 가겠다고 말했다.

그러나 결국 7차 협상이 끝나고 타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·미 고위급 협상에서 빅딜 협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이에 대비하여 본 협회에서는 TRQ(쿼터량)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현행관세는 유지하고 2008년부터 10년 동안 축차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안과 최후에는 인조꿀을 완화하여 천연꿀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.

또 협상 품목 중 인조꿀이 국내에 반입 시 불량 꿀로 둔갑할 우려가 있어 인조꿀 명칭 자체를 타 제당품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, 인조꿀 수입시 인조꿀 내에 천연꿀 함양비율을 적용하여 수입제제조치, 세이프가이드(수입제한조치) 등을 요구했다

따라서 미국 FTA 뿐만 아니라 캐나다FTA 등 수입개방시대에서 우리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.

즉 지방자치별 브랜드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, 경북 칠곡군처럼 관내에 대단위 밀원수 식재와 양봉 특구단지를 조성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.

협회에서는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화, 전업화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.

우리는 협회를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심기일전하여 변화하는 양봉산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.